

경남, 문화도시로 거듭난다

경남문화재단 발기인 대회 ... 각계 전문가 47명 참여

입력시간 : 2009. 11.10. 20:00

경남도가 문화 예술사업 발전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문화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전통문화 육성 발전을 위한 문화재 조사, 발굴사업을 병행기로 했다.

10일 경남도는 국가 부(富)의 근원이자 지역 경쟁력 척도인 문화를 발전시키고 그동안 수도권에 집중된 문화사업을 지역 문화사업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

경남도는 남해안 시대에 부흥, 고품격 문화가 흐르는 경남을 재창조한다는 비전을 실현을 위해 '경남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발기인 대회를 10일 도정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경남문화재단 발기인 대회에는 문화예술계,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도내 각계의 전문가 47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내년 1월 창립총회를 거쳐 출범할 경남문화재단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출자전환과 도 일반회계 출연금 등 114억 원의 기본재산으로 출발해 2025년까지 1000억 원을 적립, 경남문화재단은 급변하는 문화행정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종합 문화예술 지원기구로서 민간경영의 효율성과 창의성을 접목해 경남도의 품격 있는 문화예술 구현에 앞장서게 된다.

경남문화재단은 그동안 관주도의 지원 방식에서 전문가와 함께하는 고객 지향적 문화예술지원 시스템으로 변화, 경남 문화정책 및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추구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이를 위해 내년 1~6월까지 출범기를 맞아 조직 안정화에 중점을 두고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기반 구축과 문화예술진흥기금 공모지원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그리고 도입기(2010년 7~12월)에는 도민 문화 향수 기회 저변확대를 위한 경남예술 사랑티켓제, 찾아가는 문화예술 활동, 저소득 문화소외계층 문화향수 확대사업과 전통문화 육성 발전을 위한 문화재 조사·발굴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정착기(2011년~2013년)에 전문 문화 경영시스템을 바탕으로 문화예술단체와 기업 메세나 등 민간협력 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경남문화펀드 조성 등 문화기부 활성화 사업을 전개하고 남명학 등 경남 정체성 연구와 지역 대학과 연계해 문화예술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문화예술정책 개발을 위한 예술정책팀을 신설할 방침이다.

서만근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경남은 지리산과 낙동강, 남해안으로 대표되는 풍요로운 자연과 찬란한 문화예술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면서 “앞으로 경남문화재단은 우리 지역 곳곳의 문화자원을 세계인이 함께하는 보편적인 문화예술로 재창조하기 위해 노력하고 따뜻하고 아름다운 힘을 가진 경남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박재근 기자>

<박재근 기자> jkpark@kndaily.com

[<박재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는 **경남매일**(<http://www.kndaily.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kndaily.com